



소위 '빈 공간 무형상주의'에 대한 도상학적 연구*

강승일(연세대)

1. 서론

유일신 사상과 함께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독특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신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꺼리는 무형상주의 또는 반형상주의이다. 이 두 용어는 메팅거(T. N. D. Mettinger)가 게르하드슨(B. Gerhardsson)의 용어를 차용하여 정의한 *de facto aniconism*과 *programmatic aniconism*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메팅거의 정의에 따르면, 무형상주의(*de facto aniconism*)는 단순히 형상이 없거나 그에 무관심한 것을 말하고, 그에 비해 반형상주의(*programmatic aniconism*)는 형상 자체를 금지하거나 배척하는 것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40802)

을 가리킨다.¹

특별히 메팅거는 신을 구체적인 형상 없이 나타내는 무형상주의의 유형을 둘로 분류하였다. 바로 material aniconism과 empty-space aniconism이다.² 전자의 경우에 해당할 만한 것은 소위 마썰봇이라고 불리는 돌기둥을 들 수 있다. 마썰봇은 아무 형상이나 글을 새겨 놓지 않은 돌로서, 때로는 경계석으로 사용되거나, 특정한 사건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지기도 하였지만, 아라드 신전과 같은 곳에서는 신을 나타내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³

후자의 empty-space aniconism 이라는 것은 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어 있는 채로 남겨두어, 오히려 빈 공간으로 신의 현존을 나타낸다는 개념이다 (이제부터 본 논문에서는 empty-space aniconism을 우리말로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 사이의 보좌에 야훼의 신상이 없었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아래에서 논하겠지만, 여러 정황적 증거들에 비추어 사실은 솔로몬 성전 안에 야훼의 신상이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메팅거가 제시한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것이 과연 실제로 존재했던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기능을 하거나 무의미한 빈 공간을 잘못 이

1 T. N. D. Mettinger, *No Graven Image? Israelite Aniconism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Stockholm, Sweden: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95), 18.

2 윗글 (1995), 19.

3 최광현, “고대 팔레스타인의 (마썰봇) - 용도와 기원”, 『구약논단』 35집 (2010), 190-223; Elizabeth Bloch-Smith, “Massebot in the Israelite Cult: An Argument for Rendering Implicit Cultic Criteria Explicit”, John Day(ed.), *Temple and Worship in Biblical Israel* (T & T Clark, 2005), 28-39; Idem, “Will the Real Massebot Please Stand Up: Cases of Real and Mistakenly Identified Standing Stones in Ancient Israel”, G. Beckman and T. J. Lewis (eds.), *Text, Artifact, and Image: Revealing Ancient Israelite Religion* (Providence: Brown Judaic Studies, 2006), 64-79.

해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의 현존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나 신의 상징물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만일 ‘빈 공간 무형상주의’가 실재적 현상이었다면, 빈 공간으로 신의 현존을 나타낸다는 새롭고 혁신적인 양식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특수성에 대한 논쟁뿐 아니라, 다른 일반 종교학 연구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대로 ‘빈 공간 무형상주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스라엘 야훼 신앙의 특징, 즉 야훼 종교는 신상이 없는 종교라는 전통적인 이해에 의문을 던지며, 이스라엘 종교와 주변 세계의 종교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메팅거의 주장을 따라 빈 공간으로 보이지 않는 신을 나타낼 수 있다는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현상이 도상학 연구에서 때로는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곤 하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증거로 여겨질 만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타낙 제의단의 빈 공간, 신전 모형들, 보좌 모형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고고학 자료들이 이스라엘에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개념이 있었음을 입증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단순히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세부적인 주제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무형상주의의 다양한 측면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4 예를 들어, J. G. Taylor, "Was Yahweh Worshipped as the Sun?"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0 (1994), 52-61, 90-91; B. B. Schmidt, "The Iron Age Pithoi Drawings from Horvat Teman or Kuntillet 'Ajrud: New Proposals",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s* 2 (2002), 91-125; Benjamin D. Sommer, "Nature, Revelation, and Grace in Psalm 19: Towards a Theological Reading of Scriptur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08 (2015), 383.

2.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의 지성소를 묘사한 기록(왕상 6)에 의하면, 지성소 내에는 언약궤와 거대한 그룹 두 마리가 날개를 편 모양으로 세워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야훼 하나님의 신상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다. 여러 학자들은 날개를 편 두 그룹과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형상화했고, 그 보좌는 비어 있었는데, 이는 야훼가 보이지 않게 임재하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개념은 바로 솔로몬 성전 내의 비어 있는 그룹 보좌에서 착안되었을 것이다.⁵

니어(H. Niehr)는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그는 성전 지성소에 야훼의 신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⁶

첫째, 솔로몬 성전의 별명은 ‘여호와와 그의 집’이었다(시 23:6; 27:4; 92:13; 135:2 등). 하나님의 신상이 없었다면, 과연 성전이 ‘여호와와 그의 집’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

둘째, 시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예를 들어, 시 17:15).⁷ 하나님의 신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셋째,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주요 축제일에 신상을 모시고 각 지방의 신

5 솔로몬 성전의 야훼 신상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강승일, “고대 이스라엘의 신상과 신상의 입을 여는 의식”, 『구약논단』 57집 (2015), 165-170; “성경의 증거로 본 이스라엘의 반형상주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집 (2017), 19-22을 참조하라.

6 H. Niehr, “In Search of YHWH’s Cult Statue in the First Temple”, K. van der Toorn(ed.), *The Image and the Book: Iconic Cults, Aniconism, and the Rise of Book Religion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Peeters, 1997), 73-95.

7 Mark S. Smith, “‘Seeing God’ in the Psalms: The Background to the Beatific Vision in the Hebrew Bibl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0 (1988), 171-83.

전들을 행진하여 순례하곤 했는데, 이러한 야훼 신상의 행진이 시편 24편과 68편에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일부 시편에는 야훼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흔적도 나타난다(시 47, 93, 95, 96-99편). 이러한 행사는 야훼의 신상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것들이다.

넷째, 솔로몬 성전에 진설병을 놓아두고, 향을 분향했던 것은 야훼 신상이 실재했음을 암시한다. 특히 야훼가 옷을 입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사 6:1; 63:3; 겔 16:8)과 야훼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기록들(출 24:10; 겔 1:22, 26; 10:1)은 메소포타미아에서처럼 야훼 신상에 옷을 입히곤 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다섯째, 미가야(왕상 22장), 이사야(사 6장), 에스겔(겔 1, 10장), 다니엘(단 7장)과 같은 예언자들은 야훼께서 보좌에 앉아계신 모습을 본 장면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에 반하여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훼의 신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다.⁸ 우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묘사한 기록에 야훼의 신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성전의 보화 목록에 신상을 가져갔다는 기록은 없다(왕하 25:13-17). 특히, 루이스(T. J. Lewis)는 바빌로니아 기록에도 느부갓네살이 야훼 신상을 탈취했다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⁹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이 지적이 야훼 신상의 부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우선 위의 주장들은 소위 ‘무(無)로부터의 논증’이다. 또한 바빌로니아 연대기는 간략하게 왕들의 치적을 언급하는 정도의 문서로서 애초

8 Theodore J. Lewis, "Syro-Palestinian Iconography and Divine Images", Neal H. Walls(ed.), *Cult Image and Divine Represent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 (Bosto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05), 103-104.

9 윗글 (2005), 104.

부터 느부갓네살의 노략물 목록 같은 것은 없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유다에 세우고 조공을 받은 후에 바빌론으로 돌아갔다”는 짧은 기록만 있을 뿐이다.¹⁰ 그러므로 여기에 신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에 신상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야훼 신상에 대한 묘사가 성서 기록에 없는 이유는 반형상주의적 신학을 발전시킨 후대의 성경 편집자들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본래의 기록에 야훼 신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후대 편집자들의 손에 의하여 걸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야훼 신상이 있었을 가능성과 그 반대의 가능성에 대한 각각의 증거들이 있지만, 그 증거의 무게는 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의 비어 있는 그룹 보좌의 아이디어에서 착안된 소위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개념은 그 가장 중요한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3. 제의단

타낙(Taanach)에서 발견된 기원전 10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타낙 제의단은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신관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타낙 제의단은 구워진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높이가 약 53 센티미

10 Alan Millard, “The Babylonian Chronicle (1.137)”, William W. Hallo(ed.),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1 Canonical Composi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Leiden: Brill, 2003), 467-468.



타낙 제의단/사진 강후구/이스라엘 박물관 소장

터 정도 된다. 이 제의단은 모두 네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상징물들과 도상 문양들로 장식되어 있다.

제의단의 꼭대기는 마치 무언가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그릇처럼 낮게 파여 있다. 위로부터 첫 번째 단에는 아마도 기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두 볼류트(volute) 사이에 황소인지 아니면 말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동물이 새겨져 있다.¹¹ 그리고

그 동물 바로 위에 태양 원반이 있다. 이 동물은 타낙의 주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동물이 황소라면 이것은 가나안의 신 바알일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두 번째 단에는 양 끝에 사자들이 있고, 중앙에는 나무 양 옆에 산양 두 마리가 앞발을 올려 열매를 따먹는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생명나무 장면이 있다. 제일 아랫단에는 벌거벗은 여인이 양쪽 두 마리의 사자의 귀를 잡고 서 있다. 이 여인은 아세라 여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¹²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위에서 세 번째 단이다. 양편 끝에는 사람의 얼굴,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를 지닌 혼합생물이 한 마리씩 있다. 그런데 다른 단들과는 달리 이 두 혼합생물 사이

11 이에 대한 논의는 J. Glen Taylor, *윳글* (1994), 58; Ziony Zevit, *The Religions of Ancient Israel: A Synthesis of Parallaxic Approaches* (New York, NY: Continuum, 2001), 321; Othmar Keel and Christoph Uehlinger, *Gods, Goddesses, and Images of God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8), 160. 을 참조하라.

12 Kathleen Howard, *Treasures of the Holy Land: Ancient Art from the Israel Museum*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6), 163.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고, 제의단 안쪽의 빈 공간이 그대로 보이도록 뿔려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 양쪽의 혼합생물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놓여 있던 두 그룹이고, 그 사이의 빈 공간은 지성소에서 두 그룹 사이에 보이지 않게 임재해 계시던 야훼를 보이지 않게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¹³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타낙 제의단 위에서 세 번째 단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사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해석은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그룹들로 형상화된 보좌만 있었고, 실제 야훼의 신상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야훼 신상의 존재 여부는 찬반양론이 나름대로의 증거를 근거로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야훼 신상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그것을 근거로 이 해석을 전개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옳지 않다. 그 전제 자체가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타낙 제의단의 제일 위 단에 있는 동물은 그 위에 태양원반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타낙에서 숭배되던 신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주신을 맨 위에 이미 새겨놓았는데, 그보다 두 단 아래에, 그것도 빈 공간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야훼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 표현 방식이다.

셋째, 타낙 제의단이 만들어졌던 기원전 10세기는 종교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매우 초기인데, 이렇게 이른 시기부터 과연 야훼 신앙이 무형상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구약성서에서 반형상주의와

13 J. Glen Taylor, *Yahweh and the Sun; Bibl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for Sun Worship in Ancient Israel* (Sheffield: JSOT Press, 1993), 29; Ziony Zevit, *빛글* (2001), 323.

관련된 구절들은 대부분 신명기계와 제사장계 문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¹⁴

넷째, 아래에서 두 번째 단 사이의 빈 공간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타낙 제의단 내부는 전체가 비어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타낙에서는 이 제의단 이외에도,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발굴자의 이름을 따서 소위 셀린(Sellin) 제의단이라고 불리는 것도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도 사자와 혼합생물들이 있으며, 특히 여러 개의 구멍들이 뚫려 있다. 그렇다면 이 셀린 제의단에 있는 뚫린 구멍도 보이지 않는 야훼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구멍이나 빈 공간은 오염이나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주술적 기능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⁵ 아니면 아래에서 논의할 신전 모형의 경우처럼, 타낙 제의단의 아래 두 번째 빈 공간은 단순히 신전의 입구 또는 내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필자는 타낙 제의단의 아래에서 두 번째 단에 있는 빈 공간을 야훼를 보이지 않게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서 이를 소위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증거로 삼으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셀린 제의단/Wikimedia Commons에 공개된 사진

14 강승일, *윳글* (2017), 9-29.

15 Theodore J. Lewis, "Divine Images and Aniconism in Ancient Israel",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8 (1998), 50; Ziony Zevit, *윳글* (2001), 315.

4. 신전 모형

빈 공간 무형상주의 개념을 말했던 메팅거가 정작 다루지 않은 종류의 자료가 있다. 소위 신전 모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신전 모형은 소위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증거들 중에 하나로 거론될 수 있다.

신전 모형은 말 그대로 신전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모형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기원전 3천년대 우룩, 니푸르, 아라드에서, 그리고 청동기 후기 우가리트, 하솔, 게젤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랜 시대에 걸쳐 발견되었다.¹⁶ 본 연구는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무형상주의의 한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신전 모형들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신전 모형들은 보통 테라코타로 만들어졌고 일부는 색칠이 되어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모형들은 실제 신전 건물을 묘사하듯이 양편에 기둥 모양이 새겨져 있고, 지붕도 장식되어 있다. 일부는 안에 신으로 추정될 만한 것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안쪽이 완전히 비어 있기도 하다.

페니키아의 아크집(Achziv)에서 발견된 기원전 7세기의 신전 모형에는 지붕 부분에는 원반이 하나 있고, 신전 깊숙한 안쪽 벽면에 여덟 개의 단추 같은 원반들이 두 줄로 붙어 있고, 신전 안에서 바깥으로 커다란 혀와 같은 것이 늘어져 나와 있다. 킬리칸(Culican)은 이 독특한 형상은 신을 형상 없이 표현하는 무형상주의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¹⁷

이러한 해석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일 정말 이 모형에 있는 혀와 같은 형상이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16 Ziony Zevit, *윗글* (2001), 328.

17 W. Culican, "A Terracotta Shrine from Achziv", *Zeitschrift des Deutschen Palästina-Vereins* 92 (1976), 47-50. 이 신전 모형의 사진은 54쪽을 보라.

것이 곧 이스라엘에 빈 공간 무형상주의적 개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첫째, 아크집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니키아의 도시이다. 물론 페니키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페니키아의 종교적 흐름을 이스라엘의 것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둘째, 무엇보다도 아크집의 무형상주의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빈 공간 무형상주의와는 다르다. 아크집의 신전 모형은 혀와 같이 생긴 무언가가 신상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신을 구체적 형상으로 묘사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신을 나타내는 무언가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것은 이와는 다르다. 신을 나타낼 만한 아무것도 없고, 단지 비어있는 공간이 신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단, 텔 레케시(Tel Rekhesh), 티르자(북 텔 엘 파라), 예루살렘, 히르벳 케야파(Khirbet Qeiyafa)에서 신전 모형들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티르자에서 발견된 신전 모형은 기원전 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안쪽 공간이 텅 비어 있다. 이 모형을 정면에서 볼 때, 신전 입구 양편에 기둥이 서 있고, 각 기둥 꼭대기에는 종려나무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쪽으로 말린 모양의 기둥머리가 부조로 장식되어 있다. 입구 위편에는 초승달 모양이 새겨져 있고, 그 주변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다. 초승달 문양은 신의 상징물인데, 일반적으로 아스타르테 여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¹⁸

텔 레케시에서 발견된 신전 모형은 철기 1기 시대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모형은 티르자에서 발견된 것보다는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이 모형의 상단 양쪽에는 빨과 같이 위로 볼록하게 솟은 부분이 있다. 입구 오른쪽에는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는 신전의 입구를 닫는 출입문이 달

18 윌글 (1976), 51.

려 있었을 것이다. 하단 양쪽에는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자와 같은 수호동물이 붙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⁹

최근에 가핑클(Y. Garfinkel) 교수팀은 예루살렘 남서쪽 히르벳 케야파(Khirbet Qeiyafa)에서 기원전 10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신전 모형 두 개를 발굴하였다.²⁰ 하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전 모형은 솔로몬 성전처럼 양편에 기둥이 있다. 아래에는 양편에 한 마리씩의 사자들이 있고, 위에는 지붕을 가로지르는 도리가 있으며, 지붕에 세 마리의 새들이 서 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신전 모형은 상자 모양으로, 입구 안쪽은 비어 있다. 입구 양편과 위쪽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단으로 층이 저있다. 지붕 부위에는 일곱 개의 지붕보가 묘사되어 있는데, 각 보는 세 개의 널판이 세로로 결합되어 있다. 이 건축 요소는 그리스 신전에서 종종 발견되는 트리글리프(triglyph)라고 할 수 있는데, 발굴자들은 열왕기상 7장 1-6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출라오트가 지금까지는 보통 ‘기둥’으로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바로 트리글리프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제안했다.²¹ 그리고 발굴자들은 이 석회암 신전 모형은 당시에 실제 존재했을 솔로몬 성전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모형이



티르자에서 발견된 신전 모형/사진 Christophe Chavan/루브르 박물관 사용 허용/http://www.louvre.fr/en/oeuvre-notices/model-shrine-0

19 Ziony Zevit, *윗글* (2001), 337.

20 히르벳 케야파의 발굴과 토기 연대에 대하여는 강후구, “히르벳 케야파의 토기 연대와 유다왕국 건설”, 『구약논단』 69집 (2018), 328-353을 참조하라.

21 Yosef Garfinkel and Madeleine Mumcuoglu, *Solomon's Temple and Palace: New Archaeological Discoveries* (Jerusalem: Bible Lands Museum, 2016), 37-46, 178-179.

라고 주장했다.²²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신전 모형들은 모두 속이 비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전 내부가 비어 있는 것이 빈 공간으로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신전 모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전 모형 내부의 빈 공간이 곧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같이 신을 빈 공간으로 표현하는 빈 공간 무형상주의를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첫째, 신전 모형들의 내부가 비어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모형들이 신전의 입구와 그 내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구 부위에 문을 만들어 두었던 구멍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텔 레케시 등의 예가 그 증거이다. 다시 말해, 신전 모형들은 정확히 말하면 신전 내부의 지성소의 모형은 아니다. 만일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모형들 중에 솔로몬 성전과 같이 안쪽에 케루빔이라도 있다면, 그 빈 공간을 케루빔 사이의 비어 있는 보좌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신 야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신전 모형 안에



키프로스의 이달리움에서 발견된 신전 모형/사진 Pierre et Maurice Chuzeville/루브르 박물관 사용 허용/http://www.louvre.fr/en/oeuvre-notices/model-shrine

케루빔이 묘사된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빈 공간이 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둘째, 많은 신전 모형들은 내부에 신을 나타내는 작은 신상을 가지고 있다. 키프로스에서 발견된 모형들, 특히 기원전 6세기 니코시아(Nicosia)의 모형

22 윗글 (2016), 37-46, 101-126.

은 내부의 공간에 머리를 뺀 모습의 여신상이 놓여 있다.²³

또한 기원전 6세기 키프로스 이달리움(Idalium)에서 출토된 신전 모형이 있다. 신전 입구 양편에 기둥이 있고, 기둥 위에는 꽃 모양의 장식이 있다. 이 신전 모형은 특이하게 모두 세 명의 여자의 형상을 갖고 있다. 양 옆면의 벽에는 창문이 하나씩 나 있는데, 그 창문 안에 여자의 얼굴이 있다. 그리고 신전 안쪽에는 날개가 달린 여자 형상이 서 있다. 이 날개 달린 여자는 아마도 반은 새이고 반은 사람인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이나 하피를 나타내는 듯하다. 그리고 신전 양 옆의 창문에 있는 여자 얼굴은 풍요의 여신을 나타낸다.²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와도 이러한 전통은 이어진다. 아스겔론에서 발견된 유명한 성소 모형과 그 안에 놓아두던 은 송아지 모형은 이러한 신전 모형들이 기본적으로 신상을 안치해 두는 기능을 했었음을 보여준다.²⁵ 이스라엘의 신전 모형도 그 안에 신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히르벳 케야파의 모형도 신상 같은 것을 놓아둘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

셋째, 무형상주의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모압, 암몬, 후기 청동기 레바논 지역 등에서 발견된 신전 모형들도 속이 빈 것들이 있다.²⁷ 만일 이스라엘의 신전 모형들이 속이 비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빈 공간 무형상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무형상주의 개념이 없던 이들 지역의 신전 모형들의 빈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3 Brian R. Doak, *Phoenician Aniconism in Its Mediterranean and Ancient Near Eastern Contexts* (Atlanta: SBL Press, 2015), 106 fig. 5.35.

24 <http://www.louvre.fr/en/oeuvre-notices/model-shrine>.

25 Philip J. King and Lawrence E.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173.

26 Brian R. Doak, *윗글* (2015), 129.

27 Ziony Zevit, *윗글* (2001), 338-339.

이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신전 모형들에서 발견되는 내부의 빈 공간은 단순히 신전 내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 안에 신상을 넣어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증거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5. 보좌 모형

앞에서 보았듯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내부에는 거대한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그룹들 사이에 보좌가 있거나 아니면 그룹들의 날개가 보좌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한다. 그 근거로는 야훼의 별명 중 하나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삼하 6:2; 왕하 19:15; 사 37:16; 시 80:1; 99:1)으로 나타나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페니키아에서 스프링크스 보좌 모형들이 여럿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페니키아 보좌 모형들은 어떤 것들은 보좌가 비어있고, 다른 것들은 신상이나 신의 상징물 같은 것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메팅거는 페니키아의 시돈에서 발견된 보좌 모형을 가리켜 이 보좌는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신의 의자가 되는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사례”라고 했다.²⁸ 그에 의하면 이 모형은 의자 부분이 경사가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신상을 올려놓을 수 없는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발견된 일부 작은 신상들은 그러한 형태의 경사진 의자 모형에 맞게 얹혀 놓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²⁹

28 T. N. D. Mettinger, *윇글* (1995), 102.

29 Brian R. Doak, *윇글* (2015), 113.

그러므로 현재 발견된 모형이 보좌 위에 아무 신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신상을 올려놓게 되어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일 일부 모형이 정말로 처음부터 신상 없이 비어 있는 보좌로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좌 자체가 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신의 상징물이거나 신에게 바쳐지는 헌물로서의 기능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히람 석판의 옆면/Wikimedia Commons에 공개된 사진

서부 셈족 도상학 자료들에서는 보좌에 신이나 신의 상징물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⁰ 시돈과 동일한 페니키아 문화권에 속했던 비블로스에서 발견된 비블로스의 왕 아히람의 석판 옆면에는 신인지, 아니면 왕인지, 아니면 죽어서 신격화된 왕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 스팅크스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페니키아에서 출토된 보좌 모형들을 빈 공간 무형상주의를 설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도 이와 같이 그룹 사이에 야훼의 신상이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스팅크스 또는 그룹 보좌 모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개념을 입증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0 Ronald S. Hendel, "Aniconism and Anthropomorphism in Ancient Israel", K. van der Toorn(ed.), *The Image and the Book: Iconic Cults, Aniconism, and the Rise of Book Religion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1997), 224.

북시리아에서 발견된 아인 다라 신전은 솔로몬 성전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³¹ 특히 아인 다라에서 발견된 신전의 거대한 발자국을 빈 공간 무형상주의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³²



아인 다라 신전의 발자국/Wikimedia Commons에 공개된 사진

하지만 필자는 아인 다라 신전의 발자국은 빈 공간의 신학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발자국은 빈 공간이 아니다.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개념은 특정 신을 묘사하는 것 대신에 그 신을 비어 있는 공간으로 대체함으로써 신을 구체적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인 다라 신전의 발자국은 그것과는 다른 분명한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다. 신전 바닥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은 이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전의 주인인 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따라서 위엄 있는 신인지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의적 장치이다. 지성소 안에 거대한 신상을 세우기보다는 일련의 발자국만으로 신이 신전 입구로부터 지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인 다라 신전은 신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리아 지역에서의 무형상주의의 기원 및 발전에 관한 논의에는 포

31 아인 다라 신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보라. John Monson, "The New 'Ain Dara Temple: Closest Solomonic Parallel",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6 (2000), 20-35, 67; A. Mazar, "Temples of the Middle and Late Bronze Ages and the Iron Age", Aharon Kempinski and Ronny Reich(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2), 161-187.

32 Izaak J. de Hulster, "'A Monument and a Name': Isaiah 56 and the Aniconic Image", Izaak J. de Hulster, Brent A. Strawn, and Ryan P. Bonfiglio(eds), *Iconographic Exegesis of the Hebrew Bible/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 and Practic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191.

함될 수 있겠지만, 이 발자국 자체를 ‘빈 공간 무형상주의’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이다.

7. 결론

지금까지 소위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증거라고 여겨지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사실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개념이 태동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즉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의 그룹 보좌가 비어 있었다는 믿음은 백퍼센트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오히려 지성소에 야훼의 신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논리적 근거들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타낙 제의단의 아래에서 두 번째 단이 비어 있는 것이 빈 공간 무형상주의를 반영한다는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해석은 특히 첫 번째 증거, 즉 솔로몬 성전의 빈 그룹 보좌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제가 무너지면 이 해석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의단들도 창문이나 빈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타낙 제의단의 빈 공간은 주술적 기능을 했거나, 구조적이고 심미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신전 모형들에 대해서는 모형 내부가 비어 있는 것은 신을 빈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전의 입구와 그 안쪽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특히 신전 모형들의 대부분이 안쪽 빈 공간에 신상이 있었거나, 또는 신상을 안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증거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보좌 모형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보좌 모형들은 신상을 위에 고정시켜 놓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또한 보좌는 신의 상징물이거나 신에게

바치는 현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메팅거가 제기한 소위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논문에서 그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것들은 빈 공간 무형상주의의 개념이나 신학의 존재를 분명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필자는 메팅거가 제시한 소위 빈 공간 무형상주의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무형상주의와 반형상주의의 기원 및 발전을 논할 때에는 보다 확실한 증거와 그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을 국제 학계에 요청한다. 또한 앞으로 국내 학계에서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된 도상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뒤따라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야훼 신앙의 특징으로 여겨지던 무형상주의를 위시한 이스라엘 종교와 주변 세계 종교와의 연속성 및 불연속성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와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8. 참고문헌

강승일, “고대 이스라엘의 신상과 신상의 입을 여는 의식”, 「구약논단」 57집 (2015), 165-170.

강승일, “성경의 증거로 본 이스라엘의 반형상주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집 (2017), 19-22.

강후구, “히르벳 케야파의 토기 연대와 유다왕국 건설”, 「구약논단」 69집 (2018), 328-353.

최광현, “고대 팔레스타인의 (마세봇) - 용도와 기원”, 「구약논단」 35집 (2010), 190-223.

Bloch-Smith, Elizabeth, “Massebot in the Israelite Cult: An Argument for Rendering

- Implicit Cultic Criteria Explicit”, John Day(ed.), *Temple and Worship in Biblical Israel* (T & T Clark, 2005), 28-39.
- Bloch-Smith, Elizabeth, “Will the Real Massebot Please Stand Up: Cases of Real and Mistakenly Identified Standing Stones in Ancient Israel”, G. Beckman and T. J. Lewis (eds.), *Text, Artifact, and Image: Revealing Ancient Israelite Religion* (Providence: Brown Judaic Studies, 2006), 64-79.
- Culican, W., “A Terracotta Shrine from Achzib”, *Zeitschrift des Deutschen Palästina-Vereins* 92 (1976), 47-50.
- Doak, Brian R., *Phoenician Aniconism in Its Mediterranean and Ancient Near Eastern Contexts* (Atlanta: SBL Press, 2015).
- Garfinkel, Yosef and Madeleine Mumcuoglu, *Solomon’s Temple and Palace: New Archaeological Discoveries* (Jerusalem: Bible Lands Museum, 2016).
- Hendel, Ronald S., “Aniconism and Anthropomorphism in Ancient Israel”, K. van der Toorn(ed.), *The Image and the Book: Iconic Cults, Aniconism, and the Rise of Book Religion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1997), 205-228.
- Hulster, Izaak J. de, “‘A Monument and a Name’: Isaiah 56 and the Aniconic Image”, Izaak J. de Hulster, Brent A. Strawn, and Ryan P. Bonfiglio(eds), *Iconographic Exegesis of the Hebrew Bible/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 and Practic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181-196.
- Keel, Othmar and Christoph Uehlinger, *Gods, Goddesses, and Images of God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8).
- King, Philip J. and Lawrence E.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Lewis, Theodore J., “Divine Images and Aniconism in Ancient Israel”,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8 (1998), 36-53.
- Lewis, Theodore J., “Syro-Palestinian Iconography and Divine Images”, Neal H. Walls(ed.), *Cult Image and Divine Represent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

- (Boston: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005), 69-107.
- Mazar, A., "Temples of the Middle and Late Bronze Ages and the Iron Age", Aharon Kempinski and Ronny Reich(eds.), *The Architecture of Ancient Israel*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2), 161-187.
- Mettinger, T. N. D., *No Graven Image? Israelite Aniconism in Its Ancient Near Eastern Context* (Stockholm, Sweden: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95).
- Millard, Alan, "The Babylonian Chronicle (1.137)", William W. Hallo(ed.), *The Context of Scripture: Vol. 1 Canonical Composi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Leiden: Brill, 2003), 467-468.
- Monson, John, "The New 'Ain Dara Temple: Closest Solomonic Parallel",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6 (2000), 20-35, 67.
- Niehr, H., "In Search of YHWH's Cult Statue in the First Temple", K. van der Toorn(ed.), *The Image and the Book: Iconic Cults, Aniconism, and the Rise of Book Religion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Leuven: Peeters, 1997), 73-95.
- Schmidt, B. B., "The Iron Age Pithoi Drawings from Horvat Teman or Kuntillet 'Ajrud: New Proposals",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s* 2 (2002), 91-125.
- Smith, Mark S., "'Seeing God' in the Psalms: The Background to the Beatific Vision in the Hebrew Bibl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50 (1988), 171-83.
- Sommer, Benjamin D., "Nature, Revelation, and Grace in Psalm 19: Towards a Theological Reading of Scriptur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08 (2015), 376-401.
- Taylor, J. Glen, *Yahweh and the Sun; Bibl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for Sun Worship in Ancient Israel* (Sheffield: JSOT Press, 1993).
- Taylor, J. Glen, "Was Yahweh Worshipped as the Sun?" *Biblical Archaeology Review* 20 (1994), 52-61, 90-91.
- Zevit, Ziony, *The Religions of Ancient Israel: A Synthesis of Parallaxic Approaches* (New York, NY: Continuum, 2001).

검색어

빈 공간 무형상주의

솔로몬 성전

타낙 제의단

신전 모형

아인 다라 신전

An Iconographic Study on the So-called “Empty-space Aniconism”

Seung-Il Kang

Yonsei University

According to Mettinger, de facto aniconism refers to simply having no image, whereas programmatic aniconism refers to the prohibition of images. In particular, Mettinger identified two types of de facto aniconism, one of which is “empty-space aniconism.” This is the practice of leaving the space where God should be empty; expressing the presence of God with an empty space. This essay attempts to verify whether Mettinger’s empty-space aniconism really existed. This is necessary because the concept of empty-space aniconism is sometimes accepted uncritically in the field of iconographic studies.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his essay examines the Holy of Holies in Solomon’s Temple, the empty space in the Taanach Cult Stand, temple models, and

www.kci.go.kr

throne models, which are commonly regarded as evidence of empty-space aniconism.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mage of Yahweh God most likely existed within the Holy of Holies in the Solomonic Temple. It is wrong to interpret that the empty space in the second tier of the Taanach Cult Stand represents the invisible God. Considering that other cult stands also had windows or empty spaces, the empty space of the Taanach Cult Stand may have had a magical function or may have been related to a structural or aesthetic function.

In the case of the temple models, the empty space in them is more likely to represent the entrance, rather than representing the god with an empty space. The same goes for throne models. Most of the throne models are designed to allow a statue to be fixed on top.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throne model was a symbol of a god or an offering to a deity. The concept of empty-space aniconism proposed by Mettinger has tended to be uncritically accepted in academia until now. However, an in-depth analysis confirms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clearly proves the existence of empty-space aniconism. Therefore, I argue that the concept of so-called “empty-space aniconism” as proposed by Mettinger is no longer viable.

Keywords

empty-space aniconism

Solomon's Temple

Taanach Cult Stand

Temple models

'Ain Dara Temple

- 투고일: 2021년 1월 9일
- 심사일: 2021년 2월 8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9일

www.kci.go.kr

